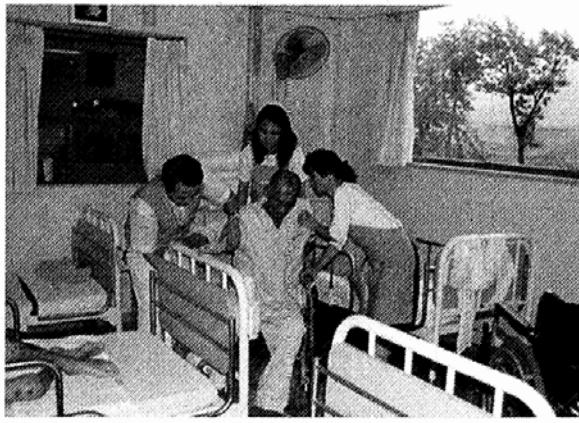


# “치매노인 보살피며 자비 배워요”

## 신행현장

### 호암마을서 봉사 김무상씨 가족



호암마을에서 자원봉사하는 김무상씨 가족이 국가유공자인 권상용 할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워 산책을 시키고 있다.

“치매를 앓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봉사의 대상은 아닙니다. 가족처럼 생각하고 함께 기쁨과 어려움을 겪으며 삶을 사는 것이지요”

시 한쪽 팔을 잃은 국가유공자 권상용(75세) 할아버지가 있다. 김거사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김욱연 보살과 민선이는 침대에 누워 있는 권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다. 그리고는 온 가족이 달려들어 할아버지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조심스럽게 옮겼다.

10~20대의 젊은 봉사자들 사이에서 묵묵히 할아버지의 용변수발을 들던 장년의 김무상(54·삼보바이오리빙테크 전무이사)가 눈에 띄었다.

찾은 김거사 가족은 이곳의 일손이 부족하고 봉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다.

“집안일로 한 주라도 빠지면 오히려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 할머니가 걱정할 정도이다 보니 이제는 개인생활을 접어둔지가 오래됐다”는 김무상(서초구 방배동)거사는 매주 일요일이면 부인 김욱연(50)보살과 자녀 민선(대원외고 2년), 민산(이수초고 4년)을 데리고 치매노인요양원인 호암마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

즐거울 것 같은데도 매주 부모님과 항상 이곳을 찾는 민선이는 “힘들긴 하지만 어른들을 조금만 신경써 모셔드리면 즐거워하니 기쁘다”며 “처음에는 친구들처럼 여가 시간에 공부하고, 놀고 싶었지만 이제는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참고교육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웃음 지었다.

김거사는 4층 법당에서 열리는 생일잔치에 할아버지가 행사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담당 간호사의 얘기를 듣고 흠뻑 봉사하던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김씨가 간병하는 205호에는 6·25전쟁 당

김욱연 보살은 “이곳에 오면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 하신다. 할머니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같아 보람이 크다”며 “아이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도 배워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김거사는 4층 법당에서 열리는 생일잔치에 할아버지가 행사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담당 간호사의 얘기를 듣고 흠뻑 봉사하던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김씨가 간병하는 205호에는 6·25전쟁 당

김욱연 보살은 “이곳에 오면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 하신다. 할머니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같아 보람이 크다”며 “아이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도 배워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김거사는 4층 법당에서 열리는 생일잔치에 할아버지가 행사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담당 간호사의 얘기를 듣고 흠뻑 봉사하던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김씨가 간병하는 205호에는 6·25전쟁 당

김욱연 보살은 “이곳에 오면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 하신다. 할머니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같아 보람이 크다”며 “아이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도 배워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김거사는 4층 법당에서 열리는 생일잔치에 할아버지가 행사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담당 간호사의 얘기를 듣고 흠뻑 봉사하던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김씨가 간병하는 205호에는 6·25전쟁 당

김욱연 보살은 “이곳에 오면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 하신다. 할머니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같아 보람이 크다”며 “아이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도 배워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김거사는 4층 법당에서 열리는 생일잔치에 할아버지가 행사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담당 간호사의 얘기를 듣고 흠뻑 봉사하던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김씨가 간병하는 205호에는 6·25전쟁 당

김욱연 보살은 “이곳에 오면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 하신다. 할머니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같아 보람이 크다”며 “아이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도 배워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김거사는 4층 법당에서 열리는 생일잔치에 할아버지가 행사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담당 간호사의 얘기를 듣고 흠뻑 봉사하던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김씨가 간병하는 205호에는 6·25전쟁 당

김욱연 보살은 “이곳에 오면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 하신다. 할머니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같아 보람이 크다”며 “아이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도 배워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김거사는 4층 법당에서 열리는 생일잔치에 할아버지가 행사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담당 간호사의 얘기를 듣고 흠뻑 봉사하던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김씨가 간병하는 205호에는 6·25전쟁 당

김욱연 보살은 “이곳에 오면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 하신다. 할머니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같아 보람이 크다”며 “아이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도 배워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김거사는 4층 법당에서 열리는 생일잔치에 할아버지가 행사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담당 간호사의 얘기를 듣고 흠뻑 봉사하던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김씨가 간병하는 205호에는 6·25전쟁 당

김욱연 보살은 “이곳에 오면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 하신다. 할머니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같아 보람이 크다”며 “아이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도 배워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김거사는 4층 법당에서 열리는 생일잔치에 할아버지가 행사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담당 간호사의 얘기를 듣고 흠뻑 봉사하던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김씨가 간병하는 205호에는 6·25전쟁 당

김욱연 보살은 “이곳에 오면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 하신다. 할머니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같아 보람이 크다”며 “아이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도 배워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김거사는 4층 법당에서 열리는 생일잔치에 할아버지가 행사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담당 간호사의 얘기를 듣고 흠뻑 봉사하던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김씨가 간병하는 205호에는 6·25전쟁 당

김욱연 보살은 “이곳에 오면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 하신다. 할머니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같아 보람이 크다”며 “아이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도 배워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김거사는 4층 법당에서 열리는 생일잔치에 할아버지가 행사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담당 간호사의 얘기를 듣고 흠뻑 봉사하던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김씨가 간병하는 205호에는 6·25전쟁 당

김욱연 보살은 “이곳에 오면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 하신다. 할머니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같아 보람이 크다”며 “아이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도 배워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김거사는 4층 법당에서 열리는 생일잔치에 할아버지가 행사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담당 간호사의 얘기를 듣고 흠뻑 봉사하던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김씨가 간병하는 205호에는 6·25전쟁 당

김욱연 보살은 “이곳에 오면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 하신다. 할머니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같아 보람이 크다”며 “아이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도 배워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 “도반의 열반소식 듣고 새삼 텅빈마음 갖습니다”

### 주제가 있는 법문



법안스님  
심각산  
금선사 주지

일전에 가까운 도반 은사스님이 입적 했다는 소식을 듣고 팔공산 은사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영결식을 마치고 다비장에 도착해 거화관에 불을 붙이는 의식을 해 할릴 때는 장면을 보면서 어찌하면 세월이 지난 뒤에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숙연해 졌습니다. 일찍 가신 아쉬움 때문이었을까. 그래서인지 목이 메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는 도반의 모습이 돌아서는 길목 내내 사무쳐 왔습니다.

저토록 한층의 재가 되고 마는 것을 풍진 세상에 태어나 수행자의 모습으로 한 생을 마감한다는 것이 아름답다고 할까. 허허롭다고 할까. 그 여운이 며칠을 갖습니다.

누구나 죽고 난 다음에는 관대해 진다고 합니다. 생전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섭섭한 사람일

세상이 이토록 허망한데 업연 짓고 살아갈까

지라도 죽고 난 뒤에는 용서와 이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명부의 세계로 떠나갔다는 생각이 들기에 그럴까요. 아니면 죽은 자의 모습이 안되게 느껴져서 그런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죽은 자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보고 그것을 나의 문제로 생각을 돌리기 때문은 아닐까요. 세상이 저토록 허망할 뿐인데 왜이리 나는 분주하게 업연 짓고 살아갈까 하고 자책함은 아닐런지요. 정병 인강 본원자리로 들어가 자기를 비취 보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년 칠월 백중(우란분절)이 다가오면 자신의 업연에 대해서 돌아보곤 합니다.

“대중이여, 나는 이제 참회를 행하노니, 대중들은 내 행위와 내 언어에서 무엇인가 비난할 만한 것을 보고 듣고 또 의심하는 생각을 내지는 않았는지? 만약 그런 생각을 냈다면 나를 부디 가엾이 여겨 지적해주고 죄를 알면 마땅히 그 죄를 뒤우치

리라” (집아함경)  
이 경구는 부처님께서 당신 자신의 허물을 대중에게 묻는 장면입니다. 부처님 재세시에는 여를 인가가 끝나는 마지막 날인 칠월 백중 해제날은 자자(自恣)를 행하는 날입니다.

자자(대중)이 서로 모여 그동안 지은 죄를 見,聞,疑,3事を 가지고 자신의 허물을 지적하는 방법은 장로(長老) 제일 웃어른을 가리킴부터 가장 어린 사비까지 차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세 번을 외었던 것입니다.

대중 앞에 자신의 허물을 풀어 무릎 꿇고 합장 고백하시는 부처님, 이 얼마나 성스럽고 자비스러운 모습입니까. 이러한 부처님의 모습을 상상하노라면 저 깊은 심연에서 울리는 고동소리를 들읍시다. 자신의 허물을 대중에게 물을 수 있는 용기, 대중의 지적을 자기 공부로 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맑히는 샘물입니다. 부처님전에 무릎 꿇고 간절히 간절히 합장을 합니다. 나 자신의 업연을 생각해 봅니다. 웬지 모르게 꾀도 모를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텅 빈 가슴으로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내면에서 우러나는 총만이 다른 사람이 볼까 부끄러워 합니다.

망자의 허망한 모습을 보고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듯이 깨어 있어서 자신을 들여다 보는 수행이 바로 참회입니다.

대중 앞에 자신의 허물을 풀어 무릎 꿇고 합장 고백하시는 부처님, 이 얼마나 성스럽고 자비스러운 모습입니까. 이러한 부처님의 모습을 상상하노라면 저 깊은 심연에서 울리는 고동소리를 들읍시다. 자신의 허물을 대중에게 물을 수 있는 용기, 대중의 지적을 자기 공부로 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맑히는 샘물입니다. 부처님전에 무릎 꿇고 간절히 간절히 합장을 합니다. 나 자신의 업연을 생각해 봅니다. 웬지 모르게 꾀도 모를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텅 빈 가슴으로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내면에서 우러나는 총만이 다른 사람이 볼까 부끄러워 합니다.

망자의 허망한 모습을 보고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듯이 깨어 있어서 자신을 들여다 보는 수행이 바로 참회입니다.

### 신행 캘린더

8월 2일 (목)

■청소년 봉사캠프=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3일까지 가평 꽃동네에서 ‘실신장애인 도와드리기’ 청소년 봉사캠프를 실시한다. (02)2282-1100

■달복자 생활체험=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오전 9시~오후 6시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달복자 생활체험 행사인 ‘제5차 우리 이웃 작은 평화 나누기 2001’을 실시한다. (02)723-6258

8월 3일 (금)

■장장년 수련대회=금강경독송회는 5일까지 포항 금강정사에서 하계 청장년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02)742-0172

■재가연대 가족캠프=침여불교재가연대는 6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남면 부령리 청학사에서 ‘2001 재가연대 가족캠프’를 연다. (02)725-6231

■나를 찾는 캠프=우리는선우는 6일까지 경기도 양평 법왕정사에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청소년 여름 캠프를 개최한다. (02)2278-8672

■시민연대 전라강연=(사)좋은빛들은 오후 7시 30분 청토서관 3층 강당에서 ‘동북아평화구축을 위한 시민연대 가능성과 전략’을 주제로 대구가톨릭대 이정숙 교수의 강연회를 연다. (02)587-8996

■햇빛정진대회=불광사 학생회가 7일까지 강원도 양구 호국 의선사에서 ‘제19차 하계햇빛정진대회’를 실시한다. (02)3431-7885

8월 4일 (토)

■부산 경찰청 무궁화 법당 불보살=부산경찰청불보살회는 오후 3시 무궁화법당의 부처님을 모시는 불보살잔치를 봉행한다. (05)0523-8760

■향일암 순례법회=한국석불선양회는 전남 여수 향일암 해수관음보살을 친견하고, 여천 흥국사에서 정진하는 제16차 순례법회를 떠난다. (02)996-7945

■여름수련대회=전국교사불자연합회는 6일까지 충남 예산군 수덕사에서 여름수련대회를 개최한다. (01)740-9494

8월 6일 (월)

■여름성지대회=전국염불만일회는 8일까지 강원도 설악산 백담사에서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 여름성지대회를 개최한다. (02)732-1215-6

■한문학당=광주불교교육원은 17일까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문교육, 우리문화 배우기, 예술교육등의 프로그램을 위주한 ‘한문학당’을 연다. (02)228-9098

### 생활속의 불교

### 수행방법에 집착말라

어떤 사람들은 수행을 위해 모종의 특별한 방법을 찾고자 한다. 책을 뒤적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뭔가 좋은 방법일 듯 싶으면 며칠 동안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도 다른 방법을 들으면 또 그 방법으로 옮겨 간다. 자신의 그와 같은 방법찾기가 또하나의 집착인 줄 알지 못한다.

뭔가에 집착하는 한 그 수행은 이미 수행이 아니다. 무언가를 이룬다. 얻는다는 생각에서 수행을 한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수행이란 곧 쉽다’ 또는 ‘방화적하라’는 말을 듣고 망상을 몰아내려고 한다. 혹은 놓아야 한다고 애를 쓴다. 그러나 망상을 몰아내려는 생각은 또 하나

의 망상이다. ‘놓아야지’ 하는 생각도 망상이다. 안 놓아진다면, 어떻게 해야 놓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한다면 그것 또한 일종의 망상이다.

수행의 방편으로 좌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좌선은 그냥 앉아 있음, 바르게 앉을 그 자체일 뿐이다. 그래서 진정한 좌선은 선방에만 있지 않다. 행주좌와가 그대로 참선인 것이다. 불보살의 명호를 외고 경전을 독송하는 것도 무엇을 얻으려 하거나 무엇에 의지하려 하다면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그르침 밖에 안된다.

진정한 수행은 무엇을 위함이 아니다. 나를 위함도 아니고 남을 위함도 아니다. 더구나 누구와 경쟁을 벌이는 것도 아니다. 그저

수행 자체가 목적인 수행이면 된다. 앉았을 때는 앉을 그것이 목적이 되고 행할 때는 행 그 것이 목적이 된다. 거기에 이상 인상을 따위가 붙을 틈이 없다. 있다면 다만 생명현상이 있을 뿐이다. 생명과 함께 흐르는 마음, 그저 흐르게 놓아두는 심이 있을뿐이다.

수행이 바른 수행이 되자면 매 순간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아무런 사비 분별의 마음이 없이 그냥 돌아 보아야 한다. 그 외에 최선의 방법이란 없다. 그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만으로 족하다. 돌아보면서 뭔가 알아내려 해서도 안된다.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는 아무 것도 알 수 없다. 그냥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은 마음이 생명과 함께 자연스레 흐르는 것을 말한다. 그게 정진이다. ■龍眼

## 청년만해대학

###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만해 한용운님의 민족 자주와 불교혁신 정신을 계승, 생활 속의 수행을 실천하여 현대사회에 맞는 새로운 불교적 가치관을 제시할 강좌에 초대합니다.

- ◆ 불교수행론
- ◆ 불교사(한국불교 근현대사 중심)의 바른 이해
- ◆ 불교문화의 이해
- ◆ 비교 종교학(특강)

- 시 간 : 매주(목) 오후 7:30 ~ 9:30(2시간)
- 일 정 : 2001년 9월 6일 ~ 2002년 1월 17일
- 모집인원 : 정규반 50명(출석수업) / 통산반 약20명
- 회 비 : 한 학기 15만원(통산반 18만원)
- 지원자격 : 불교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
- 모집기간 : 7월 26일 ~ 9월 6일까지
- 접수 및 문의 : 전화 02)736-0408/02)730-9108  
전송 02)735-2707  
E-mail : kyba003@kyba.org

(사) 대한불교청년회 부설 www.kyba.org

## 청년만해대학

### 알기 쉬운 반야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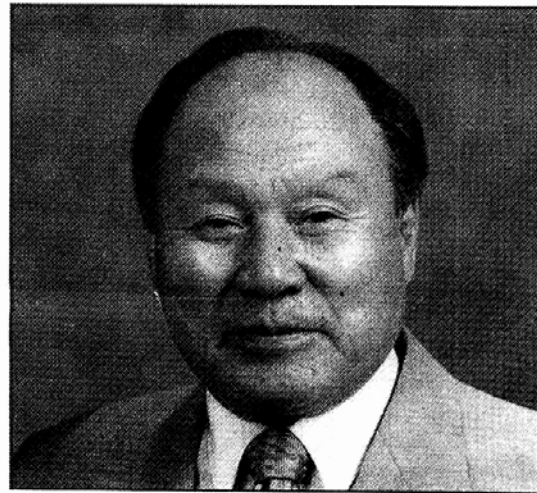
## 여름공개강좌

더운 날씨가 연일 기승을 부립니다. 이 무더위를 짝 날려버릴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사)대한불교청년회 부설 청년만해대학에서는 여름을 맞이하여 반야심경 공개강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이번 강좌는 백남석 법사님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 1) 일 정 : 8월 2일(목) ~ 8월 30일(목)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총 5회 >
- 2) 장 소 : 만해 교육원
- 3) 대 상 : - 서울지구, 조계사, 서울불청  
- 불교에 관심이 많은 청년불자 누구나  
- 일반인 대상
- 4) 동 참 비 : 무료
- 5) 강 사 : 백남석 법사 (만해대학 전임 강사)
- 6) 문 의 : 만해대학 교학처  
☎ 02-736-0408 / 730-9108

## 사람을 찾습니다

찾아주시는 분께는 일천만원을 사려하겠습니다.



- 이름 : 조형준(남자, 66세)
  - 특징 : 눈이 크고 대머리이며, 키는 168cm정도이고 붉은 벽돌색 체크 남방에 국방색 등산조끼, 등산바지를 입고 등산화를 신었음. 치매증상이 있을 수도 있음.
  - 실종일시와 장소 : 2001년 6월 19일(화) 가평 석통산 조무락골에서 (명지계곡, 화악산 근처) 등산을 하시다가 실종되었습니다.
- 연락처 : 대각사 (02)744-4502  
02) 2611-2196/011-9786-5094/011-9960-4973  
\*전국의 대소사찰 주지스님 및 대중스님과 신도 여러분께서는 삼기인을 보시거나 보호하고 계시면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